

박영숙 본 연대 으뜸지기

지난 8월 28일에서 31일까지 3박4일 동안 제주도에서 개최된 <2003 여성환경연대 전국 연수회>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있어서 큰 행운이었다. 2000년도에 전국 각지에서 각자 외롭게 분투하던 여성환경인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문제를 토로하며 동역자임을 확인했던 짜릿한 감동과는 또 다른 감흥을 경험했다.

연수회의 초반부인 이틀 동안 집중마당, 이야기마당, 그리고 공유마당에서 누가 특별한 지도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50여 명의 전 참가자들이 능동적으로 엮어낸 대화의 장을 통해 우리 모두는 우리들 자신이 크게 성장하였다는 사실을 공감하면서 새 힘이 솟아나는 것을 감지했다.

최근 새만금 살리기, 천성산 지키기 등의 환경보전을 위한 목숨을 건 종교지도자들의 '삼보일배'행진이나 단식투쟁 그리고 수만 군중의 촛불시위에 냉담한 참여정부의 환경정책 집행을 보면서 참담해 하고 있는 환경인들에게 이 나라 방방곡곡에서 여성환경인들이 각자 선 자리에서 환경지킴이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해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큰 힘이 되었다.

이번 연수회는 <2000 제주 선언문>을 잣대로 지난 3년간의 활동을 평가하는 한편 향후 여성환경운동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것이었다. 제주 선언문은 ①환경운동의 탈가부장화 ②여성단체의 환경운동 지평의 확대 ③주민자치의 관점에서 여성환경인들의 정치적 주체 형성 ④풀뿌리운동 확대 ⑤국내외의 연대강화의 통로가 되기도 하는 지방의제21의 여성의 역할강화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2000년 제주선언 이후 여성 환경운동의 활동평가와 과제모색을 하는 <집중마당>에서는 환경운동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여는 말에 이어 우리나라 여성환경운동의 활동현황과 과제 그리고 세계 여성환경운동의 흐름에 관한 발제가 있었으며 작은 주제로서 환경단체의 여성 활동 그리고 여성단체의 환경운동에 대한 비판과 고민들이 현장감 있게 제시되었다.

부문별 평가와 과제 모색을 위한 <이야기마당>에서는 여성환경운동가들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며 지난 3년 동안 형성된 지역 환경포럼을 중심으로 여성환경운동을 평가하고 풀뿌리 여성운동의 성공사례로 과천 녹색가게 이야기를 들으며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둘째 날의 <주제별 집중마당>에서는 환경운동에서의 여성 리더십 문제와 과제 만들기에 관한 분임토의가 있었고 이번 연수회의 특별코너였던 '환경, 여성, 평화'라는 주제의 <공유마당>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 전쟁문제를 환경적, 여성적 관점에서 조명해보며 한반도의 평화문제를 재삼 깊이 있게 논의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의미가 깊었다.

제주선언문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안들이 3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이라는 점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국내외의 연대망 강화에 있어 장족의 발전을 이룩했다.

국내적으로는 외톨이로 활동하던 여성환경인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물망이 형성되어 담론을 확산하고 과제를 개발하기 위한 지역환경포럼들이 구성되었고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에 따라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자치의 주역으로서의 정치세력화로 발돋움하게 된 것은 밝은 전망을 가지게 하며 2004년 총선에 대비한 여성의 참여문제가 관심을 가져야 할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었다.

국제적으로 보았을 때 동북아여성환경포럼의 결성과 WSSD 여성환경위원회 활동을 통해 세계 여성환경인과의 교류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은 앞으로의 우리나라 여성환경운동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평화문제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특히 이번 연수회에서 참가자들이 관심을 가진 부분은 지역사회에서 환경운동을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지도력의 문제였다. 전문성을 키우는 일은 중앙기구의 몫으로 돌아갔으나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은 역시 각자의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것을 동역자간에 서로 나누는 것으로 이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제안된 방안이 선배들로 구성된 멘토링 기구를 마련해서 자문에 응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여성환경연대가 1999년 창립된 이래 해마다 가져온 연수회에서 참가자들이 머리로만이 아닌 가슴으로, 그리고 몸으로 무엇인가를 체험하게 하는 문화프로그램의 소중함 역시 평가의 대상에서 빠질 수 없을 것이다. 금년도에는 '나눔의 그물망' '공동체 놀이마당' '보살핌의 그물망' '상생의 그물망' 등의 주제로 참가자들의 창의성을 자극하며 상호간의 친교를 보다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모두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었다.

향후의 과제로 제기된 것은 제주도선언의 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발전시키자는 것과 지난 3년 동안 유일하게 시도해보지 못한 <여성환경기금>의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연수회에서 얻은 뜻밖의 소득은 제주 해녀들의 독특한 공동체적 삶의 지혜를 통해 여성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성환경인으로서의 지도력 문제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연대한 여성의 힘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운 것이다. 3박4일간의 일정 중 하루를 할애하여 한라산 느끼기와 제주 해녀 이야기 듣기, 그리고 제주 여신 기행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은 한국여성재단의 '짧은 여행, 긴 호흡'이라는 여성활동가들의 에너지를 재충전하기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제주해녀들이 일궈낸 가족간의 남다른 남녀평등과 일생동안 자식에게도 의존하지 않을 정도로 확보해낸 노동경제력, 엄격한 규율에 의해 운영되는 공동체 생활에서 얻어낸 연대의 힘을 통해 전승된 특별한 문화로 제주도를 여신의 나라로 만든 제주 해녀의 삶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여성운동의 모형에 접근하는 감동을 받을 수 있었다.

2004년에 창립 5주년을 맞이하는 여성환경연대가 지속적으로 제주선언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때 이 나라의 시민운동과 여성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넓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와 지구사회의 환경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2004년 연수회에서는 여성환경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게 될지 기대가 크다.